

발 간 등 록 번 호

75-6470000-000067-08



새벽을 여는 경북 · 일자리가 있는 경북

경북도정

2006 겨울호





2007
경북방문의해

경북 2007 어서오이소!

경상북도에는
색다른 체험이 있습니다.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긴 여운의 추억이 있습니다.
경상북도로 오십시오.



2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개막 • 천년제국 신라와 양코르제국의 문화 대향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6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추진 • 경상북도 동해안을 미래 첨단에너지산업 집적지로
10	투자 유치, 본격 시동! • 경상북도 대외통상교류관 개관
14	2007년은 경북 방문의 해 • 경북 2007 어서오이소!
16	300만 도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 경상북도개발공사 • 경북도민의 수준높은 삶과 풍요로운 미래 “경상북도개발공사”가 함께 합니다!
18	「2006 경북 우수창업보육센터」선정,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연구 성과, 전문지식을 사업화 해 일자리 창출
20	300만 도민들의 따뜻한 사랑을 모읍시다! • 「희망 2007 이웃사랑 캠페인」
21	2006 경북농정대상 시상 • 2006 경북농정대상, 청도군 박희주씨 대상 수상
22	도정 이모저모 • 경주서 2006 동북아 비즈니스촉진회의 • 시·군과의 동반자 관계 구축 통한 상생발전 분위기 조성
24	도정단신
25	알아봅시다
26	이 책! - 독도 울바로 알기, 길 따라 코스 따라 우리가족 주말여행 52선
28	김치 한 포기 더 담기, 건강을 챙기고 농민을 생각하는 유익한 선택!
29	건강이야기 - 건강을 챙기려면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자
30	가볼만 한 곳 - 김천 수도산 청암사
32	경북의 맛 - 김천 지례 토종 흑돼지
34	도의회소식



경북도정 2006 겨울호(통권369호)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김관용 / 편집인 : 김태웅

발행일 : 2006년 12월 22일 / 인쇄처 : 홍익출판인쇄사 ☎ (053) 356-0088

문의처 :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 950-3058, 2031 FAX. 956-4926



천년제국 신라와 앙코르제국의 문화 대향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경상북도와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이 11월 21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군 일원 엑스포 주행사장에서 성대한 개막잔치와 함께 내년 1월 9일까지 50일간의 문화 대장정에 돌입했다.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수교 10주년 기념식을 겸해 열린 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비롯해 공동조직위원장인 김관용 도지사와 속안 캄보디아 부총리, 양국 초청인사, 관람객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축포와 함께 축하 비행, 세계공연예술 공연단의 축하공연, 코끼리 퍼레이드, 천상의 무희 압사라공연단이 '동양의 신비'를 주제로 매혹적인 무대를 꾸몄다.

개막에 앞서 진행된 전야제는 앙코르와트에 설치한 특설무대에서 펼쳐져 캄보디아 승려 80여명과 한국-캄보디아 공연단 120여명이 신라와 크메르문화의 완벽한 앙상블을 연출하며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앙코르-경주 엑스포를 통한 인류의 평화와 상생의 메시지를 연주해 각광을 받았다.



화려한 볼거리와 다양한 이벤트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행사는 찬란한 신라 문화와 캄보디아의 고대 양코르문명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전야제, 개막제, 폐막제 등 공식 행사의 화려한 볼거리와 다양한 전시와 공연, 3D영상, 이벤트 등이 준비되어 있다.



| 전시

한국문화관과 캄보디아 문화관에서 ‘한국 이미지전’ 과 ‘크메르 문화전’ 이 관람객을 맞는다.

한국의 이미지전은 사진과 동영상, 애니메이션, 퍼포먼스 등으로 한국의 사계와 신라의 황금문화, 한글, 한복 등을 세계인에게 선보이고 있다.

크메르 문화전은 캄보디아의 양코르 문명을 대표하는 유물과 전통 민속품을 양코르시대 이전, 양코르시대, 양코르시대 이후로 나눠서 전시한다.



| 공연

세계 30여개국이 참가하는 ‘세계공연예술축제’와 ‘한국·캄보디아 특별공연’이 개최된다.

전통과 현대 등 장르에 관계없이 각 국을 대표할 수 있는 흥미있는 작품들이 무대에 올려져 세계 각 국의 살아있는 공연예술을 통해 관객에게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참가국간 문화이해와 함께 각 국의 문화교류를 이끄는 페스티벌이다.

코스타리카, 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요르단, 폴란드, 필리핀, 일본, 슬로바키아,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루마니아, 미국 등의 공연단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캄보디아 특별공연에서는 한국과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20여개 공연단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국수호 디딤 무용단, HATA, 정속희무용단, 고성오광대보존회 등이 한국의 전통을 선보이며, 캄보디아에서도 대표 공연단이 신비로움을 선사한다.

| 3D영상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수출하고 있는 3D애니메이션 「천마의 꿈-화랑영웅 기과랑전」과 캄보디아측의 「위대한 황제」가 3D영상관에서 매일 5회씩 교대 상영된다.

「천마의 꿈」은 화랑영웅 기과랑전은 목숨을 바친 희생을 통해 신라의 평화를 지킨 기과랑과 선화낭자의 애뜻한 사랑이야기를, 「위대한 황제」는 크메르 제국의 건국신화와 자야바르만 7세와 왕비의 사랑, 애국심을 감동적으로 그린 3차원 입체영상물이다.

| 이벤트

신화와 황혼으로 물든 앙코르와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앙드레김 패션쇼와 한국-캄보디아 전통의상쇼는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더욱 화려하게 했다.

12월 11·12일 이틀간 디너쇼 형태로 진행된 앙드레김 패션쇼에는 한국의 유명 연예인 20여명이 출연한 가운데 캄보디아인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앙코르와트를 찾아온 관광객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으며, 한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도 남사당패 놀이, 민속공예품 만들기, 널뛰기 등이 펼쳐지는 한국 민속놀이마당과 캄보디아 전통공예품 만들기, 닭싸움, 캄보디아 권투, 소마차 경주 등이 준비된 캄보디아 민속놀이마당, 크메르 고전 무용 콘테스트, 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폐막식은 앙코르와트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으로, 공동조직위원장 폐회사, 한국·캄보디아 특별공연단의 합동무대, 한국과 캄보디아 인기가수의 축하무대로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연출가 김아라씨가 맡은



폐막 특별공연 ‘만다라의 노래(A Song of Mandala)’는 양코르와트에서 열리는 세계 최초의 공연으로, 전쟁과 이념 분쟁이라는 역사적 공통분모를 지닌 두 나라의 원혼들을 불러내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인류 번영을 기원하는 불교 의식(천도재) 형태로 진행된다.

입장권 1장만 있으면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행사의 모든 전시와 공연, 3D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입장요금은 성인기준으로 한국인 15달러, 외국인 20달러이며, 10명 이상 단체의 경우 1달러씩 할인되고, 단체예매권을 구입할 경우 2달러씩 할인된다.

국내에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문의 : 사업운영팀 ☎ 054-740-3060)를 통해서, 캄보디아에서는 관광부 산하 24개 지역사무소와 유명호텔, 레스토랑에서 입장권 구입이 가능하다. <

| 어떻게 가나

양코르-경주 엑스포를 방문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여행사를 통해 전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행사 기간 대구에서 매주 5회(월2, 수1, 금2) 출발한다. 마카오나 홍콩을 경유하게 되며 양코르 와트 등 캄보디아 유적지, 양코르-경주 엑스포 관람, 마카오나 홍콩 관광이 포함된다. 보통 5박6일 일정에 경비는 70~80만원 선이다. (문의 : 자유투어 ☎ 053-427-8500, 화인여행사 ☎ 053-422-6100)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엑스포를 방문하려면, 인천이나 부산공항을 통해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가면 된다. 시엠립 공항에서 시엠립 시내를 지나 양코르와트 방향으로 모토택시(오토바이 택시)나 시클로(자전거 택시)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오른쪽에 행사장이 있다.

캄보디아로 가는 항공편은 주 27회.

아시아항공(인천 → 시엠립 : 월, 목, 금, 일) 4회,

아시아항공(인천 → 프놈펜 : 월, 수, 목, 토) 4회,

대한항공(인천 → 시엠립 : 월, 수, 목, 토) 4회,

프로그래스 멀티항공(인천 → 시엠립 : 월, 화, 목, 금) 4회,

프로그래스 멀티항공(부산 → 시엠립 : 수, 토) 2회,

에어마카오(대구 → 마카오 → 시엠립 : 월, 금) 2회,

홍콩중부항공(대구 → 홍콩 → 시엠립 : 월, 수, 금) 3회,

대한항공(대구 → 방콕 → 시엠립 : 월, 수, 목, 일) 4회 등이다.

항공요금은 왕복 60~80만원선.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추진선포식

에너지클러스터 비전발표 및 상호협력협약 체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2009. 11. 29.



경상북도 동해안을 미래 첨단에너지산업 집적지로

U자형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할 사업으로 부상

경상북도는 11월 29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동해안 지역발전을 통해 U자형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추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관용 도지사와 박승호 포항시장, 백상승 경주시장, 김병목 영덕군수, 김용수 울진군수 등 동해안 지역 4개 시장·군수,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손진군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환경에너지센터장, 대구경북연구원장, 한수원 월성원전과 울진원전본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지역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전 보고회와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기획단」 현판식을 가졌다.

■ 왜 에너지클러스터인가?

경상북도의 주력산업 분야인 섬유, 철강, 전자산업 등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장기적인 경쟁력 상실에 대비하여 향후 지역발전을 이끌 새로운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경상북도의 4대 전략산업에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추가하여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 동해안은 경주~포항~영덕~울진을 잇는 원전,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포항공대 등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양성자가속기, 한국수력원자력, 중·저준위 방폐장 등 에너지 관련사업 및 기업과의 연계가 용이해져 미래 국가 첨단에너지산업의 집적지로 육성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국토개발이 서·남해안 중심의 L자형으로 추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해안지역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여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한편 세계기후변화협약상의 교토 의정서의 발효 등으로 국내·외적인 에너지환경이 변화하여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됨에 따라 첨단 에너지산업 육성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서둘러 에너지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할 이유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친환경 첨단에너지산업은 생명과학, 유전공학, 정밀화학, 신소재 등의 첨단산업과 연계는 물론 전기, 전자, 원자력, 물리 등 여러 학문분야가 종합적으로 관계되므로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화 효과가 큰 분야로 여러 선진국에서도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 경상북도의 잠재력은?

경상북도는 포항공대 등 39개 대학,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방사광가속기연구소, 나노기술집적센터, 포항철강산업단지,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 양성자가속기 입지 등 풍부한 연구개발 인프라 및 산업화역량 보유는 물론 부지확보의 용이, 고속도로, 고속철도, 포항·울진공항, 항만 등 SOC가 잘 갖추어져 있다.

무엇보다 국내 원전 총생산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집적지이며, 풍부한 전기공급으로 수소 생산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산업 등이 발달한 포항, 울산은 물론 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원료, 기자재, 부품소재산업이 발달한 구미, 창원 등 배후 연관산업 집적지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 에너지클러스터는 어떻게 추진하는가?

경상북도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4개 시·군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내년 1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첨단에너지산업특구 및 에너지기업도시 지정 등 국가에너지정책의 중심사업으로 선정해 중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통일시대 및 국가에너지 수급에 대비하여 북한, 러시아, 일본과 연계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 국토균형발전전략 및 종합발전계획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기본계획수립과 국가정책사업화를 추진하고, 울산광역시와 강원도 등을 아우르는 광역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여 동해안권 공동발전을 모색한다.






에너지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추진할 사업으로는 먼저 공공분야 등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을 통한 초기 시장형성을 유도하고, 대체에너지 기술교육·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 글로벌화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한수원, 양성자 가속기, 방폐장건설과 연계한 에너지·환경 관련 기업, 연구기관 유치 및 신·재생 에너지 기업체의 창업과 이전을 장려하여 에너지·환경 기업도시 건설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며, 국내·외 저명 원로 과학기술자 등을 위한 친환경 주거·휴양단지인 사이언스 빌리지(Science Village)를 조성하고, 해양에너지, 원자력, 풍력 등 에너지·환경기술(ET)과 NT, BT 등첨단기술 융합으로 에너지 신기술 창출 및 산업화 연구를 위한 첨단퓨전기술연구소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도(울릉도) 해저의 천연가스하이드레이트도 개발한다. 미래형 친환경에너지로 매장량 6억톤에 1,500억불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에너지·환경기술테마파크 조성, 수소에너지 개발센터 설치, 양성자가속기와 연계한 첨단 의료·휴양복합타운 조성 등 다양한 국가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에너지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에너지특구, 에너지기업도시지정 등 국가정책사업화를 통한 소요예산의 국가재정지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원자력 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연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BTL(민간자본유치사업, Build Transfer Lease) 등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 대외통상교류관 개관

투자상담 · 통상교류 활동 펼치는 비즈니스 중심센터로 활용

경상북도는 12월 7일 국내 · 외 기업인들과 지역 경제관련 단체장, 국제자문대사, 캐나다 한인실업인 연합회(UKBA)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공관 1층에 ‘대외통상교류관’을 개관했다.

대외통상교류관은 앞으로 경북을 찾는 국내 · 외 귀빈은 물론 기업CEO나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투자 상담과 통상교류 활동을 펼치는 비즈니스 중심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 이어 도내 중소기업 제품과 농 · 수산품의 캐나다 수출길을 활짝 여는 경상북도와 캐나다한인실업인 총연합회간 업무제휴협약(MOU)이 체결되어 개관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10월 16일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재일동포 선수단을 인솔한 도쿄 도민회 기업인 40여 명을 관사로 초대해 투자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난 11월 23일에도 고향을 찾은 일본 교토(京都) 경북도민회

기업인 32명을 공관으로 초청하여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지는 등 취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도지사 관사를 투자유치장으로 활용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경상북도는 도지사의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민선4기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1억2천만불의 외자를 유치하는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의 몸을 사리지 않는 「세일즈 경북」 활동에 공무원들은 물론 도민들과 언론에서 조차 놀라고 있다.

꼭두새벽 공항으로 달려가 만난 재일교포 실업인에 경북투자 요청

11월 초, 한 일간신문에 파격적인 도지사의 투자유치 활동이 소개되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출신의 실업인과 기업들이 만나는 「세계한상대회」가 개최되는 부산BEXCO 행사장에서 11월 1일 오전 9시 미주지역 한미식품상연합회와 경북 농·수산물 판로개척과 수출물량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시에 재일교포 실업인 (주)마루한 한창우 회장을 만나 우리 도에 대한 투자를 제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창우 회장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11월 1일 아침 일찍 출국한다는 소식을 접한 김관용 도지사는 꼭두새벽 김해공항으로 달려갔다.

어떻게 김해공항 접견실에서 (주)마루한 한창우 회장을 만난 김관용 도지사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경상북도지사입니다”라고 했다는 것. 이에 한 회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일개 사업가에게 도지사님이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오셔서 이렇게 환대하실 줄은 몰랐다”며 황송해했다고 한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내 민자유치대상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경북도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특히 문화와 관광사업에 관심이 많은 한창우 회장에게 세계적인 휴양지인 하와이처럼 울릉도를 종합 휴양관광레저단지 조성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과, 포항과 경주 등지에 동해안 해양관광단지 (sea world project) 조성, 안동 문화관광단지, 영주·예천·청송의 온천관광지구 조성, 그리고 경주오페라하우스 건립 등의 투자제안서를 설명하고 경북투자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창우 회장은 “도지사가 직접 찾아와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닌 투자제안서를 제시하고, 투자를 요청하는 등 세일즈맨 같은 적극적인 자세에 감격했다”며 “일본으로 돌아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 다음에는 울릉도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경북 농·수산물·식품 미주지역 진출 본격화

한편, 경상북도는 미국, 캐나다 등 미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30만명의 해외교포를 적극 공략하여 국내 농·수산물 및 식품의 해외수출 확대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11월 1일 세계한상대회가 열린 부산BEXCO 행사장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김주한 미주한미식품상총연합회 회장이 자리를 함께 하고, 「경상북도·미주한미 식품상총연합회간 업무제휴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경북도내 농·수산물·식품 등의 미주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농·수산물 및 식품·유통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정보를 상호 교류하며, 해외사업 및 조사 연구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데 상호 합의했다.

미주한미식품연합회(KARGO)는 1989년 발족하여 현재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 전역에 30개 협회 2만5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한상(韓商)조직이다.



경상북도는 도내 생산 농·수산물·식품관련 회사와 KAGRO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우수 농수산물 특판행사를 뉴욕에 이어 LA, 캐나다까지 확대하고 상설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미주시장 공략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일본 아사히글라스사 2단계 1억불 추가투자


조세감면 등 지원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서둘러 추진

경상북도와 구미시, 일본 아사히글라스사간 1억불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지난 5월 25일 체결한 이후 아사히글라스사의 공장설립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조세감면, 부지무상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를 서둘러 진행키로 했다.

이번 2단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지난 2004년 1단계 투자에 이은 2단계로 아사히글라스사가 100% 투자한 아사히PD글라스한국(주)법인이 구미4공단에 1만 8천평 규모의 공장을 건립, 내년 8월부터 PDP-LCD용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1억불 규모의 투자에 따른 것이다.

이번 투자유치 성과로 LCD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한편, 1억불 투자에 따른 직접고용 201명, 간접고용효과 1,079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연평균 1,8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29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26억원의 재정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사히 PD글라스한국(주)는 이번 구미공장 건립으로 일본에서 생산하여 수출할 때 드는 물류비용 절약의 메리트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PM제도를 통한 one-stop서비스로 앞장서서 신속하게 해결 해 주는 등 경상북도에서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되어 2단계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3단계 투자도 검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투자기업이 안심하고 재투자 할 수 있도록 기존 투자기업을 방문,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고,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해외 타깃기업을 집중 발굴·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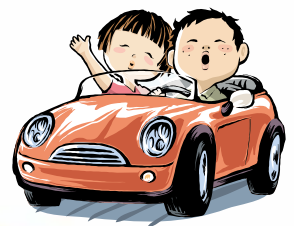
경북 2007 '어서 오이소!'

2007년은 경북 방문의 해이다.

문화관광부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방문의 해」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2004년부터 「지역방문의 해」사업을 추진한 이래 드디어 2007년 「경북방문의 해」 행사를 맞게 되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경북관광의 특징과 잠재력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어서 오이소! 경북 2007”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심벌마크와 캐릭터, 로그타입 등 상징체계를 활용한 경북관광 브랜드의 대대적 마케팅과 테마와 체험관광이 중심이 되는 미래형 관광산업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주민소득 향상과 직결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도 지원축제를 10개 정도로 확대 지원한다.




테마여행 상품으로 야간을 이용해 다양한 관광지를 돌아보는 달빛 신라역사 기행,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안압지 야간공연, 동해안 달맞이 야간산행, 수학여행단 야간 달빛공연 상품 등을 개발하여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있다.



또한 경북 대표음식을 발굴하여 음식여행 상품을 만들고, 기차여행상품, 관광객 모객 전세항공기 운영, 새마을운동 테마 관광코스, 다시 가는 수학여행, 황혼의 실버여행 등 정감어린 추억여행상품도 운영한다. 더불어 도내에 산재한 12개 성씨별 본관의 시조묘, 종가, 집성촌, 종중 행사를 활용한 조상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상품 등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4월말경 한류스타 콘서트를 도내에서 개최하는 등 레포즈, 예술공연, 킨벤션 등 전국단위 규모의 행사를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스포츠 스타 및 연예인 등 경상북도 홍보대사 팬 사인회 개최는 물론 국내·외 언론인과 여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 실시, 홍보설명회, 경북관광사진 순회 전시, 수도권 지하철에서의 홍보지하철 운행, 서울역·명동 등지에서의 경북관광 및 상품 홍보·판촉 등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 경상북도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함께, 신라불교, 북부권의 유교문화, 고령 성주의 가야문화 등 우리 민족 3대 역사문화권의 중심지이다. 또한 신라시대 이전부터 이 땅에 축적되어 왔던 수많은 관광자원은 경북의 관광산업을 초일류산업으로 도약시켜줄 보배들이다. 2007년, 정해년(丁亥年) 돼지해는 관광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들이 행복하게 잘사는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호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서 오이소! 경상북도 2007”

< 문의 : 경상북도 관광산업과 053-950-3331 , 경북나드리 홈페이지 [Http://www.gbtour.net](http://www.gbtour.net) >





경북도민의 수준높은 삶과 풍요로운 미래 “경상북도개발공사”가 함께 합니다!

경상북도의 균형개발을 위한 각종 택지개발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이 있다.

경상북도가 자본금 100%를 전액 출자하여 1997년 7월 1일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출범 9년째를 맞아 보다 나은 생활기반을 닦고 도내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300만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보면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또는 공공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경주의 용강지구, 구미의 옥계1,2,3지구, 원호지구, 구평1,2지구, 경산 옥산2지구, 신대부적지구, 포항 초곡지구 등을 개발·공급하여 도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을 집단화·체계화하기 위해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안동시 풍산읍 괴정·매곡리,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등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였다.

이 외에도 무주택 도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구미 옥계3지구 360세대, 경산 백천지구 630세대, 구미 옥계2지구 340세대 등을 건립하였고, 팔공산 한티 휴게소, 문경새재 휴게소, 경주 서라벌광장 등의 관광휴게소 개발,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안동의료원 장례식장, 경도대학 종합문화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 「지역균형개발의 실현」이라는 설립목적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한 성과로 당기순이익이 2003년 65억원, 2004년 17억원, 2005년 73억원 등 1998년 이후 계속 흑자경영을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기존의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하는 한편 체육시설, 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시행할 계획으로, 모든 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건설하고 성실하게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공기업으로 성장·발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연구 성과, 전문지식을 사업화 해 일자리 창출

경상북도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자!



세계적인 우수대학으로 인정받는 미국의 스탠포드대학, 그러나 대학 설립 초기에는 미국 서부의 별 볼 일 없는 학교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 대학이 1940년대 경영위기를 맞았을 때 프레드릭 터먼이라는 교수가 “캠퍼스 부지를 빌려 주어 임대료를 받고, 대학의 연구성과로 얻은 기술을 입주기업에 팔아 기술이전을 하면서 첨단기술공업 단지를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이 아이디어는 현재 휴렛팩커드(HP), 인텔, IBM 등 세계 100대 하이테크 기업 가운데 상위 20대 기업의 본사가 몰려 있는 유명한 실리콘밸리(Silicone Valley)를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역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규기업의 창업 및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도내 대학 및 연구소 창업보육센터의 실태를 종합 평가하여 운영실적이 우수한 센터를 「경북 우수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하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한다.

「2006 경북 우수창업보육센터」로 선정된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성과와 성공창업 사례를 들여보았다.


경일대학교는 ‘산·학·연 연계강화’를 대학 최우선 특성화정책으로 수립, 「산학협동이 강한 대학, 창업에 빠른 대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지역중소기업 지원 및 벤처창업의 Hub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아 공장형 보육센터 및 R&DB센터를 건립하고, ‘기술창업패키지1000’, ‘창업동아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창업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학 내에 창업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우수 잠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고학력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04년 경상북도 창업보육센터 평가에서 최우수센터로 지정되고, 2005년과 2006년 연속으로 우수센터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중소기업청 지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자 지정, 2005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산·학·연 유공자 부문 대통령상 수상, 중소기업청 시행 ‘기술창업패키지 1000’ 대구·경북지역 운영기관 선정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교수·연구원의 창업지원규정과 학생 현장실습 규정을 제정하여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하는 교원은 교원업적평가점수를, 실습학생에게는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교수창업자(겸임교수 포함), 졸업생 및 동아리창업자 등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이 대학 학생들을 사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실업해소는 물론 재학생들에게 현장실무경험의 장을 마련하여 대학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창업 잠재인력 양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실례로 이 대학 졸업생인 (주)티엠에스코리아 김신희 대표는 실습생 위주로 자사에 취업시켰으며, (주)지오씨엔아이(대표 조명희, 위성정보공학과 교수)는 33명의 사원을 모두 제자들로 구성하여 오랜 연구개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전문지식을 사업화함으로써 창업 2년 만에 4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대표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신기술창업보육사업(24개 업체), 신기술고도화사업(6개 업체), 창업동아리사업(86개), 경영진단 자문(21개 업체), 공동기기센터 운영 등으로 지역 특성화 분야의 산업기술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학·연·관 협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요즘도 새로운 기술창업을 통해 매일 수많은 백만장자를 탄생시키고 있다고 한다.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경상북도의 창업보육센터 신화탄생을 기대한다. 

※ 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ion center) 란?

기술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일정기간 기술 및 자금지원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대부분이 전기, 전자, 컴퓨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주업체들이 벤처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실험실이나 공동작업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의 활용이 가능하며 대외적인 높은 인지도로 인해 많은 벤처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희망 2007 이웃사랑 캠페인」

도내 전역에서 내년 1월말까지 집중 모금활동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월 1일 김관용 도지사, 이상천 도의회의장, 도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전정에서 「희망 2007 이웃사랑 캠페인」출범식을 갖고, 집중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은 사랑의 열매 전달, 희망의 메시지 선포,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김관용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도민들의 사랑이 모인다면 더 이상 춥고 외로운 이웃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 사랑의 온도가 온도탑 끝까지 올라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희망 2007 이웃사랑 캠페인」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것으로 도내 전역에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올해 경상북도의 모금목표액은 60억으로 전년모금목표액 56억 대비 9% 증가, 도민 1인당 매일 35.6원씩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1인당 2,200원을 기부하면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모금목표액은 경북지역의 사회복지현황 분석을 근거로 책정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개인 등 도민의 사랑이 필요한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지원하게 된다.



2006 경북농정대상, 청도군 박희주씨 대상 수상

제11회 농업인의 날 기념주간 맞아 대구시내서 경북농산물 홍보

경상북도는 제11회 농업인의 날 기념주간을 맞아 11월 9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상천 도의회의장, 농업관련단체장, 소비자단체,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2006 경북농정대상」 및 경북쌀 우수브랜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2006 경북농정대상 시상식에서는 청도군 이서면 박희주씨가 대상을 수상하고, 식량작물분야 문중복(영천시 금노동), 친환경농업분야 이영학(성주군 수륜면), 과수분야 박용덕(군위군 소보면), 채소특작분야 홍연도(포항시 연일읍), 농축산물유통분야 박우상(예천군 용문면), 축산분야 성영욱(상주시 낙동면), 농촌개발분야 송성일(봉화군 명호면), 농업기술개발분야 김영표(경산시 하양읍), 여성농업인분야 오순조(의성군 단북면) 등 9명이 분야별 대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대구 소비자들에게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경북 우수농산물 및 쌀로 만든 음식 전시」 등 부대행사를 실시하고, 김관용 도지사과 참석자들은 대구 동성로에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경북사과 무료 나눠주기 행사」를 가져 대구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대상(농산물수출)		
		
박희주, 53세 청도군 이서면		
식량작물	친환경농업	과 수
		
문중복, 58세 영천시 금노동	이영학, 58세 성주군 수륜면	박용덕, 47세 군위군 소보면
채소·특작	농축산물유통	축 산
		
홍연도, 53세 포항시 연일읍	박우상, 63세 예천군 용문면	성영욱, 38세 상주시 낙동면
농촌개발	농업기술개발	여성농업인
		
송성일, 44세 봉화군 명호면	김영표, 44세 경산시 하양읍	오순조, 49세 의성군 단북면

경주서 2006 동북아 비즈니스촉진회의 5개국 36개 지방자치단체 참가, 「다자간 무역상담회」도



경상북도는 12월 5일부터 8일까지 경주 현대호텔에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2006 동북아 비즈니스촉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동북아지역간 통상증진 및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12월 6·7일 양일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및 한국의 기업체와 바이어 170여명이 참가하여 「다자간 무역상담회」도 개최, 활발한 구매상담을 펼쳤다.

「물동량 영일항만 이용 확약 및 양해각서」체결 (주)코오롱 전품목 물동량 2009년부터 영일신항만에서 처리

경상북도는 12월 6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박승호 포항시장, (주)코오롱 배영호 사장, 포항영일신항만(주) 최동준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컨테이너부두 개항에 앞서 「물동량 영일항만 이용 확약 및 양해각서」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코오롱그룹에서 발생하는 전품목 물동량(2만TEU/년)을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영일신항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며,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항만정책 관련업무 협력 및 지원으로 포항 영일신항만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포항영일신항만은 3만톤급 선박 4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부두(안벽길이 1천m, 폭 600m)를 2009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군과의 동반자 관계 구축 통한 상생발전 분위기 조성 도지사 초청 시장 군수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는 11월 8일 도내 23개 시장·군수를 초청한 가운데 제1회의실에 걸려 있던 역대 도지사 사진을 도내 23개 시장 군수 사진으로 교체하는 행사를 갖고, 참석한 시장·군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장 군수의 사진과 시 군정 방침을 함께 게시한 것은 30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따로 일 수 없으며, 도와 시·군이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김관용 도지사의 철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경상북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도정과 시·군정의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적극 협력하는 상생과 협력의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 현판식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 탄력, 공동추진과제 등 논의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는 김관용 도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6일 대구 대동타워에서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 현판식」을 가졌다.


이에 경제통합추진위에서는 경제통합과 관련한 과제 및 사업의 발굴, 경제통합추진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심의사항 사전검토, 경제통합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처리 및 창구역할, 경제통합 로드맵 수립 등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현판식에 앞서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를 비롯한 시·도 실·국장 16명, 민간위원 9명 등 추진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공동추진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시·도공무원 통합교육, 대구·경북 경제살리기 창업펀드 조성사업, 사무국 구성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경상북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초빙

경상북도는 외교통상부 주시드니 총영사를 지낸 김창수씨를 2007년 10월까지 1년간 국제관계자문대사로 임용(원소속 : 외교통상부), 일본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문제’ 해결 등 국제관계 업무 지원 및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단 파견과 투자사절단 방한 활동에 대한 자문 등 경상북도의 외교·통상 정책 전반에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06 전국 전원마을 페스티벌, 국무총리상 수상

경상북도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농림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주최로 개최한 「2006 전국 전원마을 페스티벌」 행사에서 봉화군(파인토피아), 경주시(산내고원리조트), 상주시(녹동마을) 등 3개 작품을 출품하여 전국 17개 자치단체 19개 전원마을 모델과 치열한 경합을 다룬 끝에 국무총리상과 포상금 5천만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경북 쌀, 전국 브랜드쌀 평가에서 우수 브랜드 선정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농림부의 후원으로 개최한 「2006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에서 경북 상주의 풍년일품쌀골드(풍년RPC)와 의성 황도쌀((주)한가위)이 각각 우수와 장려브랜드로 선정, 시상과 함께 향후 벼 매입자금 등 정책자금 우대 지원과, 도 자체적으로 각종 박람회(홍보관) 출품, 미디어광고 등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 물가관리 실적평가 9년 연속 수상 영예


경상북도는 행정자치부의 2006 상반기 물가관리 실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98년도부터 한해도 빠지지 않고 9년 연속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포항시, 영천시, 봉화군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북도의 이 같은 연속수상은 현장중심의 지도점검 강화, 명절·행락철 등 취약시기 특별관리대책반 운영,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집중관리, 불공정 상거래 행위 단속 등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로 풀이된다. 

경북능금 홍보판촉행사 개최


경상북도는 경북사과를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수도권 최대의 변화가인 서울 명동에서 “2006경북능금홍보행사”를 진행하고,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대만의 사과수입 7개 회사의 대표들로 구성된 수입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대만은 사과생산량이 매우 적고 중국산 과일 수입이 금지되어 아시아권에서 사과를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으로서 경북사과 수출량의 95%이상이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 2006 임업연구상 수상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는 2006년도 임업연구상 시상에서 송이 인공증식 관련 연구과제가 국내외 특허 및 향후 연구과제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연구지원상을 수상, 국립산림과학원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 200만 원을 수여받았다. 

연말 전국단위 각종평가에서 “응도 경북” 위상 떨쳐

경상북도는 지난 12월 14일 농림부와 환경부 공동 주최로 개최한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에서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인 특별상과 함께 2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또한 전염병관리사업 전국종합평가대회에서도 시·도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산림청이 주관한 치산분야(임도, 사망사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연말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응도 경북”의 위상을 다시 한번 크게 떨쳤다. 

100년만에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2007. 4. 5부터 2011년까지 병행사용



100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되도록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10월 4일 공포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가 도로명 시설을 완료하면 도로명주소를 바로 고지하여야 하고, 도로명주소의 공법상주소 효력인정과 호적·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하며, 도로명 주소사업을 촉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종합계획수립·예산지원 및 도로명주소의 활용 촉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전 시·군에 대해 도로명, 건물번호 부착 등 시설구축완료(2009년까지), 각종 공부변경, 도로명 정비, 시설물 개량 등을 기간내 완료(2012년까지)하여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고,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국민혼란 방지를 위하여 2011년(향후 5년간) 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 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시설물 구축이 완료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구축하여 2007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며, 이 센터에서는 도로와 건물에 대한 속성정보와 주소정보를 인터넷 포털과 네비게이션, 위치기반 서비스 등에 제공하게 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112, 119 등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053-950-3679)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시행
농림부 고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축산농가 유의 당부



경상북도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시설과 사육두수 등을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하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도내 9,152호의 축산농가 등록을 마치고, 축산업 등록자들의 준수사항인 「가축사육시설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부 고시 제2004-8호)」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하고 있다.

고시는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2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한육우를 계류식으로 사육할 경우 번식·비육우는 두당 5㎡, 송아지는 2.5㎡가 필요하며, 젖소를 계류할 경우 4.3~8.4㎡, 돼지 번식돈은 1.4~3.9㎡, 산란계는 0.042~0.11㎡의 면적이 소요된다.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도내 시·군 축산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면적 위반시 과태료(1차 3만원, 2차 30만원, 3차 100만원)가 부과됨으로 축산업 등록농가에서의 가축 적정사육면적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

(담당부서 : 축산경영과 053-950-2885)

독도 일반현황과 역사적 사실, 알기 쉽게 구성

경상북도는 독도에 대한 기본현황을 비롯하여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근거를 알기 쉽게 설명한 「독도 올바르게 알기」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독도 올바르게 알기」는 일반 국민들이 휴대하기 간편한 25절 크기에 모두 44쪽(표지포함) 분량으로 2만부를 발간하였으며, 내용은 크게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독도의 일반현황을 신고, 2부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사실과 근거를 실었다.

제1부 독도의 일반현황에서는 독도의 위치·거리·크기 등의 최신 자료와 기후와 자연생태 및 독도에서 자라는 식물사진 등 독도의 자연환경을 담았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현재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독도 주민 김성도씨 부부의 생활 모습도 함께 실어 경상북도가 행정적으로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근거편에서는 독도에 대한 한·일간의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먼저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역사적 사실을 문헌과 고지도 등의 사료를 근거로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오류를 우리측 학자뿐만 아니라, 일본측 학자들이 지적한 내용도 함께 실어 우리 국민들이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상북도는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중심으로 2007년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판도 만들어 대외 홍보용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독도지킴이팀 053-950-2231)




경북의 어느 관광지라도 손쉽게 찾아가도록 소개

경상북도는 「2007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경북의 23개 시·군별로 2~3개의 테마코스를 선정, 총 52개의 도내 여행코스를 소개하는 주말여행용 관광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주5일근무제로 부쩍 늘어난 가족단위 주말여행객들이 보다 편하게 경상북도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 52개 테마의 여행코스별로 도로명, 거리, 소요시간은 물론 숙박, 식당, 주변관광지 등의 정보를 제공, 처음 가는 낯선 지역이라도 손쉽게 원하는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소개된 52개의 여행코스는 각각 하나의 독립된 테마여행상품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 책자를 보고 원하는 지역, 원하는 테마관광을 할 수 있으며, 여행업체에서도 테마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 관광지를 대거 포함하여 경주, 안동, 영주 위주의 관광행태에서 벗어나 경북전역을 관광자원화, 관광상품화 하여 경북관광의 깊이와 폭을 더하고 있다. 

(문의 : 관광산업과 053-950-2827)

감기예방 · 소화기능 촉진, 놀라운 배추의 효능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는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채소다. 그러나 1인당 연간 김치섭취량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치냉장고가 널리 보급되면서 1인당 연간 소비량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배추가격이 폭락하여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자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김치 한 포기 더 담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이다. 모 TV방송국의 건강관련 프로그램에서 배추의 우수한 효능을 소개하여 화제가 되었다. 배추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

먼저 영양학적으로 배추는 1백g당 13kcal로 열량이 적은 반면 비타민C가 풍부하다. 특히 배추 속에 농축되어 있는 비타민C는 열을 가하거나 소금에 절여도 잘 파괴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싱싱한 과일 ·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에 배추김치를 즐겨 먹었다. 배추의 비타민C가 감기예방 ·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

그리고 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많다. 이 식이섬유가 ‘대장(大腸) 청소’를 하기 때문에 배추김치를 즐겨 먹으면 변비 · 대장암 예방과 치질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식이섬유를 다량 섭취하면 배변속도가 빨라지므로 설사 증세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배추가 암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김치의 암예방효과는 대부분 배추에서 나온다. 비타민C · 식이섬유 외에 색소인 카로틴 · 엽록소 등이 암예방 물질이다. 특히 배추에 들어 있는 인돌이라는 성분은 발암물질이 활성화 되는 것을 억제하며, 이소씨오씨아네이트는 해독작용과 암세포 자살을 유도한다는 것.

배추의 흰 줄기부위에는 당(糖)이 많고, 노란 잎부위에는 카로틴, 푸른 잎부위에는 엽록소가 풍부하다. 이밖에도 배추에는 체내에서 비타민A로 작용하는 카로틴을 비롯해 칼슘, 식이섬유, 철분, 칼슘 등이 들어 있다. 배춧국을 끓였을 때 구수한 향미를 내주는 것은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 성분 때문이다. 또한 배추는 침의 분비를 원활히 하고, 소화를 도우며 내장의 열을 내리게 하는 작용을 하며, 칼슘 성분은 뼈대를 만드는 데 필요하며, 산성을 중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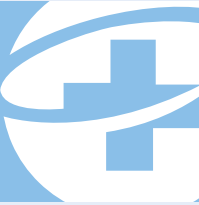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배추를 생활상비약으로 많이 활용했다. 화상을 입거나 생인손을 앓을 때는 배추를 데쳐서 상처 부위에 붙였다. 옷독이 올라 가렵고 괴로울 때는 배추의 흰 줄기를 찢어서 즙을 낸 다음 바르기도 했다. 또한 변비 증세에도 배추 잎의 즙을 짜서 매일 식간마다 한 컵씩 오래도록 마시면 좋다.

< 배추즙 만드는 방법 >

1. 파란 겉잎 위주의 배추400g을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썰어 녹즙기에 간다.
2. 이렇게 간 배추즙에 레몬즙이나 꿀을 약간 넣어 마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3. 배추와 당근을 같은 분량으로 혼합한 즙을 마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있는 “건강관리센터”



보건소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곳이다(?). 요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는 매우 잘못된 편견이다. 근래 들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보건소의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여 일상적인 검진과 1차 치료는 물론 다양한 건강여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유용한 보건소 이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소아 예방접종

아이들의 예방접종은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할 경우 장점은 홍역을 제외한 18개월까지의 예방접종이 전액 무료이며, 접종시약의 유효기간을 철저히 지킨다는 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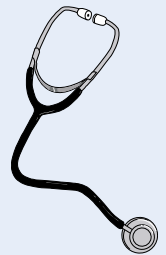


● 노인 물리치료

많은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가 있다. 이는 노인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 국가적인 사업이다. 단순한 물리치료는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결핵검진 및 치료

보건소의 결핵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호흡기질환 전문가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설사 병원이나 의원에서 결핵이 진단되었다더라도 의사의 소견서를 가져가면 결핵 치료실에 등록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거의 무료로 높은 수준의 치료와 추후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성인병 검진 및 장애인 검진

국가에서는 많은 재정을 들여 무료로 영세민이나 장애인을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혹시 큰 병원을 이용할 때 보건소의 검진소견서를 가져가면 다시 검사할 필요가 없다.

● 에이즈검사를 비롯한 성병검사

각종 성병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밀을 잘 지켜 주고, 더 나아가서 질환 발견시에는 치료 및 관리까지도 무료로 해주고 있다.

● 방문간호

거동이 불편하여 거택치료 및 간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지역 보건소에 연락하자. 지역 보건소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상담과 방문간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소는 집과 가까워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기에 용이하다. 한 예로 고혈압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중풍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재활, 보건교육,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통합적인 질병치료가 이뤄져야 함으로 그만큼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는 이유로 멀리 떨어진 도시 병원을 찾느니 가까운 보건소에 자신의 주치의의 두는 것이 훨씬 좋다.

기억하자! 보건소는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있는 참 좋은 “건강관리센터”이다. 🐦

질은 솔향기와 맑은 공기가 몸과 마음을 깨우는 곳!

산 좋고 물 좋은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시의 최남단 증산면 수도산(일명 불령산) 자락에는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청정도량 청암사가 있다.

울창한 솔숲을 달려 도량을 알리는 일주문을 바라보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솔향기가 정신을 번쩍 깨운다. 진입로를 걸어가는데 공기가 어찌나 맑은지 머릿속까지 개운해지는 듯하다.

일주문을 지나 줄지어 선 아릅드리 나무사이를 걷다 보니 오른쪽에 ‘우비천’이라고 쓰인 샘이 나온다. 청암사의 지형이 소가 왼쪽으로 누워있는 와우형인데 이 샘이 바로 코 부분에 해당되어 ‘우비천’ 혹은 ‘코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청암사는 서기 858년 신라 헌안왕 2년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예로부터 불교 강원으로서 정평이 난 곳으로, 지난 1987년 현재 주지인 지형스님이 청암사 내에 비구니 승가대학을 설립하여 낡은 도량을 보수하고 부속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전통강원의 맥을 더욱 튼튼하게 뿌리내렸다.

청암사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북쪽의 낮은 곳에 남향으로 자리 잡은 대웅전과 그 남쪽 언덕 위의 극락전이 자리잡고 있다.

대웅전 옆에는 육화료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건물이 눈에 띈다. 새을(乙)자 형에 귀틀을 지닌 전각으로서 108평이나 되는 너른 방을 가진 승가대학의 중심을 이루는 건물이다.



극락전은 조선시대 숙종의 왕비였던 인현왕후가 복위를 기다리며 한 많은 세월을 보냈던 곳으로, 건물에 궁궐 건축양식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인현왕후와의 인연으로 청암사는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불령산 적송산림은 국가보호림으로 지정된 덕택에 곧고 크게 잘 자란 이곳의 나무들이 근래에 이뤄진 직지사 복원사업에 쓰기도 했다고 한다.

청암사의 산내암자로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도암이 있다. 자동차로 10여분을 달리는 길가에는 등산객들이 드문드문 눈에 띈다. 수도암 아래 입구에는 산채, 두부 등의 먹거리를 파는 자그마한 식당들이 옹기종기 서있다.

간간히 뿌리던 부슬비가 수도암이 가까워질수록 진눈깨비로 바뀌더니 수도암에 들어서니 멀리 보이는 단지봉을 거쳐 가야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산봉우리가 흰 눈을 뒤집어쓰고 장관을 이룬다.

경내에는 천 여년의 역사를 지닌 약광전 석불좌상(보물 제296호), 3층 석탑(보물 제297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307호) 등의 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청암사를 창건한 도선국사는 수도처를 찾다가 이 터를 발견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7일 동안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현재도 수도암은 비구스님들이 수련하는 선방으로 매우 조용하고 한적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암사와 수도암에서는 방문객들이 경내에서 소란스럽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겨울의 초입을 알리는 바람이 코끝을 스치며 제법 차가웠지만, 머리를 깨우는 맑은 공기와 온몸을 감싸는 솔향기는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하늘을 향해 기지개를 켜도록 한다. 🌬



지례 꺼먹돼지, 맛 봤능교?

철분이 많이 함유된 지하수를 먹고 자라 담백하고 쫄깃한 지례 흑돼지



돼지고기는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이다. 소갈비를 찾기에 주머니가 어려운 서민들은 돼지갈비와 삼겹살 구이를 찾았고, 돼지고기를 송덩송덩 썰어 넣은 김치찌개 하나면 밥 한 그릇 비우기는 물론이요,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다.

이렇듯 서민들이 애용하는 돼지고기도 그 부위별로 선호도가 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위인 돼지고기 삼겹살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수입까지 하고 있으나, 그 맛이 국산 돼지고기와는 달라 사람들은 수입산을 꺼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산 중에도 그 품질을 특별히 인정받는 유명한 돼지고기가 있다. 김천 지례 토종 흑돼지가 바로 그것이다.

김천에서 거창방면으로 자동차를 달려 20분 거리에 있는 지례면은 예로부터 돼지고기가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철분이 많이 함유된 지하수를 먹고 자라 고기맛이 담




철분이 많이 함유된 지하수를 먹고 자라 고기맛이 담백하고 쫄깃하기로 유명한 지례 흑돼지(일명 꺼먹돼지)는 임금님께 진상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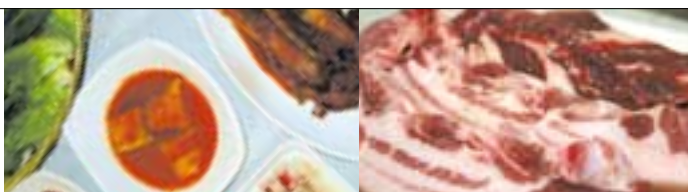


백하고 쫄깃하기로 유명한 지례 흑돼지(일명 꺼먹돼지)는 임금님께 진상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천시 지례면사무소가 있는 교리에는 토종 흑돼지 숯불구이 전문식당이 준비하게 밀집해 있고, 가격도 저렴해 미식가가 아니더라도 이곳을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목살 삼겹살을 숯불에 구워 소금에 찍어먹는 소금구이와 양념에 재워 초벌구이 한 것을 다시 숯불에 올려 구워먹는 양념불고기, 고기를 삶아내는 수육, 돼지고기가 푸짐하게 들어간 김치찌개 등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다. 소금구이, 양념불고기 모두 1인분(200g)에 7,000원 정도.

기본 상차림에 나오는 아삭하고 시원한 맛의 물김치와 매콤새콤하게 무쳐내는 파 곁절이, 된장을 풀어 시원하게 끓여내는 시래깃국국의 맛도 수준급.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경북의 맛이다!! 





제210 정례회 결산




최초로 독도 현지에서 도의회 본회의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10월 10일 독도에서 이상천 의장과 도의원 55명, 의회사무처직원 40여명, 김용대 행정부지사 및 도청 실·국장, 언론사 취재단, 도민 등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 달 조례제정 1주

년 기념행사 및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독도 거주 민간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독도경비대원 및 독도주민 김성도씨 내외를 격려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짐했다.

한편, 제210회 정례회는 10월 11일부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속개하여 도정질문과 민생관련 각종 안건처리,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200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10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여 위원장에 이시하 의원(문경), 간사에 이상용 의원(영양)을 각각 선출하고 폐회했다. 

도정 질문 요지




김만용 의원(교육환경위원회)

경상북도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중국어선의 북한 원산만 수역에서의 싹쓸이 조업으로 동해안 어장이 피폐화 되고 있는데 도에서 중앙정부에 대책을 건의한 바 있는지, 북한의 일정한 해역에서 조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 참나무 시들음병 확산으로 재선충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양봉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에 대규모 밀원식물단지를 조성 할 용의, 경상북도의 감사기능을 의회에 이관할 용의, 대구·경북 경제 통합의 경북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수용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도지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한 견해, 경북도와 강원도, 울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우리 도의 정책은, 장기 과학기술 투자계획 수립 대책, 도청이전의 원칙과 논리는 무엇인지, 도청이전에 따르는 예산 확보방안,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는 대책 등에 관해 질문했다. 




남종식 의원(농수산위원회)

한·미 FTA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경북은 농도로서 FTA에 대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농민사관학교의 구체적인 설립방안, 농민사관학교 입학교육 대상자는 누구, 농민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농업예산확충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윤영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낙동강 유역 수해상습지에 대한 예방 대책, 수해 등 재해의 원인이 지방자치단체나 시공회사의 잘못으로 밝혀졌을 때 도의 대책, 한·미 FTA 체결 이후 도의 농업대책, 가격이 비싼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할 의향, 농기계순회수리서비스 확대 및 농민들에게 농기계수리교육 확대 실시하는데 대한 견해, 도내 농로포장과 경지정리 개선방안, 농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서비스의 활용계획 및 확대방안, 도청이전 결정 후 탈락한 지역에 대한 대책, 수도권 단체장이 주장하는 대수도론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 등을 질문했다. 




채옥주 의원(교육환경위원회)

도내 여성단체에 대한 도의 지원방안 및 계획, 여성발전기금의 추가 조성 및 운용 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강화와 확대에 대한 도의 견해, 출산도우미제 등 출산장려정책을 실질화하기 위한 대책, 농촌지역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늘려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체계적인 한글교육과 기초 법률교육 등에 대한 대책, 독립교향악단과 국악단의 공연일정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홍보강화, 민선 4기 경상북도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이재철 의원(통상문화위원회)

경북 북부권의 개발 소외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농민사관학교, 도청 이전, 영어마을조성 등의 사업들이 소외되고 낙후한 지역에 유치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 할 계획은, 낙동강 뉴프론티어프로젝트의 기대효과,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미진한 부분을 신속하게 추진할 용의, 교통의 요지인 상주시에 경상북도 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할 용의, 경북 북부권역에 천연가스 수급을 건의할 의향, 상주~김천간 4차선 확·포장공사를 도내 북부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장길화 의원(건설소방위원회)

경상북도의 기금운용을 시대환경에 맞게 통폐합 할 의향, 기금관리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가칭「기금 지도감독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하는 1조원 펀드의 자금 조성 및 운영방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 기업이나 대형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대책, 도내 버스업체의 노선 조정과 운행횟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의향,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선정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계획 등을 질문했다.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 광주시의회 방문

통상문화위원회는 이상효 위원장과 장경식(포항) 의원, 정무웅(울릉) 의원, 이재철(상주) 의원은 경주시의회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 이만우 산업건설위원장, 강익수 시의원 3명과 함께 10월 31일 광주시의회를 방문,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을 만나 「경주 세계역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관련하여 광주시의회에서 제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해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경북도민이 납득할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흡족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b.go.kr) 확대 개편



경상북도의회는 제8대 도의회 개원 이후 보다 발전적이고 의욕적인 사이버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상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진정/민원신청, 토론방 개설, 어린이홈페이지 재구성, 다국어(영 일 중) 홈페이지 추가 등 도민참여와 의정활동 안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제공해 오던 인터넷 생방송 메뉴를 전면 배치하여 도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모습을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열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도청 강당에서 이상천 도의회의장,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보건복지위원, 윤호정 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경북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공청회로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지역 여성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의정연구회 세미나 개최, 정례회 앞두고 활발한 업무연찬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회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영주 옥녀봉자연휴양림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입법정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민수 전문위원 및 동양대학교 황종규 교수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기법”과 “지방의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특강을 청취하고 정례회를 앞두고 활발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였다.

중국 하남성 인민대표회의 상무부주임 일행 방문


이상천 경상북도의회의장은 11월 8일 이장탁(李長鐸) 중국 하남성 인민대표회의 상무부주임의 일행 내방을 받고, 양도와 성간에 상호협력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본예산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

경상북도의회는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2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21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를 개최, 김관용 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경상북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하였으며,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경상북도 각 실·국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007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과 각종 기금 심사와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상임위별로 논의하고,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현안사항,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함으로써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가칭 「동해안 지방의회 협의회」창립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11월 13일 경상북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강원도의회가 참여하는 가칭 「동해안 지방의회 협의회」창립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경상북도의회 김응규 의회운영위원장,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재석 기획경제전문위원,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 간사, 내무전문위원,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기획행정전문위원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명칭 및 규약 협의, 지방의회 협의회 차원의 동해안 발전계획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

했다. 

도정 질문 요지



권영만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평균 승진소요연수 분석」자료보다 우리 도의 평균 승진소요연수 더 긴 이유,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 지방공기업 대표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입 의향, 노인복지분야 예산을 증액할 의향,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추진계획과 실적, 중부내륙 광역개발권 개발계획에서 국비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사업의 규제완화 방안, 2007년도 중부내륙 광역개발권 개발사업 내역과 예산 확보방안, 봉화~법전 4차선 확·포장공사 조기 개통 위한 국비확보 및 도비지원 방안 등을 질문했다. 



장세헌 의원(교육환경위원회)

경북 영일군 기계면 문성동에 남아있는 영상기록 등을 살펴보면 고 박정희 전대통령과 국무원원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여 새마을 사업 추진을 지시한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는 기계면 문성리가 아닌지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도지사께서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계면 문성리를 새마을운동의 메카로 홍보하실 의향, 새마을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계면 문성리에 기념관 또는 조형물을 건립할 의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노옥 의원(농수산위원회)

경북도의 결혼 이민자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종합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 경북 북부권을 체류형 대단위 전원마을촌으로 집중 육성할 의향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농산물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도에서 수출농가에 주는 수출보조금을 인상할 의향,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경북한우 사육 농가의 보호를 위한 대책,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을 다시 시행할 의향,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논 깊이갈이에 대한 도비지원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이상효 의원(통상문화위원회)

투자통상본부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 2007년 예산 편성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없는가, 지방채 발행시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의향,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지역이 한수원 본사 이전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 대책, 전임 도지사가 약속한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도차원의 추가지원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절반만 편성된 이유, “경주 세계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위한 대책과 추진상황 등을 질문했다.



김영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구미 해평습지를 람사습지 및 국가습지 지정하여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의향, 최근 신규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예정인 구미공단지역에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국가산업단지로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활용할 것을 건의할 의향, 대형할인점에서 지역상품의 판매 의무화와 지역 유통업체로 법인화하는 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위한 대책, 종합건설사업소를 종합건설본부로 승격할 의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나규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경북도가 별도 조례제정 없이 시외버스사업조합에 재정보조금을 과다지원하여 문제가 된 바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업체에 대한 사후점검 결과는, 시외버스사업조합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배분과 집행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 및 개선방안, 혁신도시의 개발면적이 170만평에서 105만평으로 축소하게 된 과정, 일선 시·군의 비정규직 공무원과 일용직 채용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도립 화장장을 추가 건립할 의향 등에 관해 질문했다.

이상천 의장 ·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 국회 방문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협조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과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은 11월 2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를 긴급 방문하여 지난 11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채택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 법안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상천 의장과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은 경주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과 전국에서 국가 지정 불교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살아 숨쉬는 노천 박물관으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인프라의 우수성은 온 국민이 공감하므로 정부 주도 문화사업은 당연히 경주 역사도시 조성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광주광역시의회의 「경주특별법」반대는 지역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경북 도민의 뜻을 전달했다.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충북도의회 의원일행 접견



기획경제위원회 이현준 위원장은 11월 30일 오후 상임위원실에서 충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 등 일행 7명의 예방을 받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충북도의회 방문단은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부·팀제 및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등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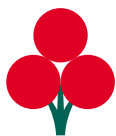
나누면, 행복+행복

몰랐습니다. 나눔이 이렇게 내가 먼저 따뜻해지는 일인지...
나누면, 행복+행복... 당신의 나눔으로 조금 더 행복해진 세상이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gb.chest.or.kr 행복해지는 전화 060_700_1212

나눔의 행복	060-700-1212
사이버공간의 사랑실천	gb.chest.or.kr
행복을 나누는 계좌	농협: 731-01-002268
	대구은행: 021-05-780444-001
	예금주: 경북공동모금회 (전구좌 수수료 면제)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시 중구 삼덕3가 376-25 KBS빌딩 2F TEL: (053)253-8844~5 FAX: (053)431-8002

귀하께서 기부하신 성금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전액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송금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